

정시 배치표

수능 성적대별로 합격 가능성이 있는
대학·학과를 한눈에 정리한 자료.

정시에 지원할 대학은?

취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수능이 끝나면 각종 입시 사설 기관에서 정시 배치표를 만들어 공유합니다. 배치표는 전년의 입시 결과와 수험생의 성적 분포 등을 참고해 성적에 따른 정시 지원 결과를 예측한 자료입니다. 표의 첫 열(세로)에는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표준점수 합·백분위 합·등급 평균이, 행(가로)에는 대학 이름과 모집 요강의 주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열과 행이 만나는 자리에는 성적대별로 합격 가능성이 있는 모집 단위와 선발 인원이 제시됩니다. 희망 대학이 자신의 성적대보다 위에 위치할수록 합격 가능성이 낮고, 아래에 위치할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시 배치표는 어디서 구하나요?

배치표를 제작하는 사설 입시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 입시 설명회에서 종이로 배포하기도 합니다. <내일교육> 역시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자문 교사단과 함께 성적 입력 후 지원 가능 대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합격책’을 제공합니다.

정시 배치표의 활용법이 궁금해요.

자기 경쟁력을 가늠하고 정시에 지원할 대학을 탐색하는 데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적대보다 2~3행 위아래의 대학·학과까지 후보로 두고 지원 전략을 세웁니다. 대학별로 정리된 학생부·면접·실기 반영 여부, 표준점수·백분위·등급 중 평가에 활용하는 지표, 영역별 반영 비율 등을 참고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시 배치표만 믿고 지원해도 될까요?

지원 대학 후보를 정하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길 권합니다.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 영어·한국사 영역의 반영 방법, 가산점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원 전에는 대학별 반영 방식에 따라 계산한 ‘환산 점수’를 바탕으로 합격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최종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